

기고



김덕형 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

참기 힘든 무더위 불쾌지수! 양보와 배려로 이겨내자

폭염특보가 연일 뉴스에 오르 내리고 있는 요즘 날씨는 가히 불볕더위, 찜통더위란 표현이 제일 맞을 듯 하다.

거리를 가닐면 뜨거운 공기에 숨이 턱턱 막히고 습도마저 끈적 끈적한 느낌을 가져오는 불쾌함. 이렇듯 덥고 습한 기온에서는 상대적으로 불쾌지수가 높아지게 된다고 한다.

후덥지근한 날씨는 불쾌지수를 높이고 그 자체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듯 짜증나는 날씨에는 평소와 다른 옷차림과 습도 조절이 중요하다. 70이던 쾌적한 상태, 71~60은 보통, 77~80에서는 불쾌함을 느낀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불쾌지수가 60~70이면 쾌적한 상태, 71~60은 보통, 77~80에서는 불쾌함을 느낀다고 한다.

이처럼 날씨가 덥다보니 신경이 날카로워지면서 안내심이 사라지고 자칫 사소한 시비가 폭행을 부르고 극단적인 행동으로

까지 치닫는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다.

유독 여름철에 폭력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상호간 배려가 중요하다.

열대야에 폭염까지 가히 살인적인 더위에 사람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무더위가 장기화되면 덩달아 불쾌지수까지 높아질 경우 상대적으로 크고작은 사건사고가 발

생할 우려가 많다.

오히려 이렇게 불쾌지수가 높을수록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훨씬 시원한 여름을 날수 있지 않을까 싶다.

전문가들도 여름철 불쾌지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신선한 물과 과일, 채소를 섭취하는 한편 적절한 실내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명상이나 기분전환을 통해 예민해진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을 권유하고 있다.

덧붙여 후덥지근한 날씨일수록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불쾌지수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도 한다. 무더운 여름철은 우리 모두 힘들어하는 계절인 만큼 더욱 수록 오히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발 양보해 서로 이해하는 자세를 갖아야 할 것이다.

무더운 여름철을 불쾌지수를 행복지수로 바꾸어 나가는 슬기로운 여름나기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社說

전월세 전환을 인하여 보완책 필요

정부는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10월부터 전월세 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로 1.5%p 낮추기로 했다. 지난달 임대료 상한을 5% 정하고, 임대 기간 4년을 보장한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월세 전환이 이어지면서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자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표준 이자율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기준금리+3.5%'로 돼 있다. 이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대였던 2016년에 정해져 기준금리가 0%대로 떨어진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지적이 있던 터라 세입자 보호를 위한 하향 조정을 볼 수 있다. 이번 전월세 전환을 현실화로 집주인의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면 전세의 월세 전환이 억제돼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이어진 부동산 대책과 관련 입법의 연장선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정부가 의도하는

것처럼 세입자의 고통을 덜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우선 전월세 전환율은 권고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지금도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 같은 아파트에서도 층이나 방향, 관리상태, 인테리어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는데 전·월세 전환율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의견도 있다.

임차인과 세입자 간 갈등 소지도 커졌다. 현장에서는 임대보증금이 크게 올라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반전세나 월세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임대차 3법 통과로 물량 잠금 압력이 커지면서 전셋값은 지난주까지 59주째 상승세를 지속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큰 틀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여야 하고 임대물량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시장 기능이 회복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아파트는 물론 장기임대주택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려 공급 불안 심리를 잠재워야 한다.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Lists various emergency and service numbers.

Table with 2 columns: 호남신문, 대표전화. Contact information for Honam Shinmun.

'불법주·정차' 여기는 절대 안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제도기간을 마치고 지난 3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매우 큰 위협요소라는 국민적 관심이 반영된 것이다.

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신고가 접수되면 위반된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 위반지역이 모호한 경우 계고장을 통해 불법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방침이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하면 상단의 신고 유형을 '대 불법주정차'로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다.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

서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사진 촬영 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차 금지 표시(화색실선복선 또는 표지판)가 나타나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원이 부과된다.

관계기관에서는 공동주택 안내판 홍보물 비치, 홍보영상 상영, 모바일 등 SNS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집중 전개하고,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도 실시해 어린이보호구역만큼은 어린이들의 안전이 완벽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어른들의 잘못된 주정차 관행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만큼은 불법주정차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기를 바란다.

이재복/고흥경찰서 대서파출소

차안에 어린이를 혼자 두지말자

요즘에는 한집에 자동차 한 대 정도는 누구나 가지고 있으며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성 운전자들도 흔하게 볼 수 세상이다.

아린 아이를 기르고 있는 부모들은 인근 시장이나 할인점 등에 생활용품을 구입하러 어린이를 자동차에 태우고 외출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전염 때문에 잠깐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차안에 둘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잠깐 일을 보기위해 어린이를 자동차 안에 둔 채 문을 잠금 상태로 방치했다가 일사병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가만히 있거나 해도 땀이 주르륵 흘러내릴 정도로 대기의 기온이 높을 때에는 자동차 안

의 온도는 순식간에 올라간다. 더욱이 어린이는 피부가 얇기 때문에 잠깐 동안이라도 치명적인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우리 몸은 정상체온보다 6℃만 높아도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으며 표면체온이 60℃ 이상이면 즉시 세포가 죽고 혈전이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

자동차 안에서 어린이 질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절대 어린이를 차안에 두지 않도록 하고, 자동차 안의 온도가 50℃ 이상 올라가면 어린이들이 순식간에 질식사하거나 의식을 잃게 되어 뇌손상을 잃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신속하게 찬물로 열을 발산시켜 뇌와 조직의 손상을 막도록 하여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지키도록 하자.

한선근/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국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